

# '경전의 바다' 함께 빠져봐요

## 동산반야회 '니까야 독송회 신행결사' 내달 7일부터 7년간 진행

'불교경전을 다 읽을 기회는 없을까?' '원전으로 경전을 모두 볼 수는 없을까?'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경전을 다 읽는다는 것은, 그것도 원전으로 본다는 것은 그저 상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마당이 펼쳐진다.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한글 니까야 독송회'를 결성해 오는 12월부터 2013년까지 7년동안 평판대장경 읽기 신행결사에 들어간다.

'니까야'는 팔리어로 '아람'을 뜻하는 말로,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경장이다. 다시 말해 니까야는 초기불교 경전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디가니까야·맛지마니까야·쌍왓다니까야·앙굿따라니까야·굿따카니까야 등 경 내용의 길고 짧음에 따라 5부로 구성돼 있다.

12월 7일 오후 7시 입재를 시작으로 4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7년 동안 계속되는 '니까야 독송회 신행결사'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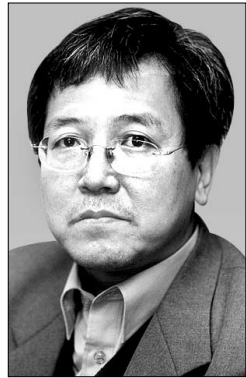
4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은 이번 신행결사의 지도부사를 맡은 전재성 박사(한국해양리정전협회장)와 이미령씨(동국대영원역경위원), 그리고 김재일 회장이 '니까야란 무엇인가' '니까야를 독송해야 하는 이유' 등을 주제로 열린다.

200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독송은 이미령 역경위원이 맡게 되며, 매주 독송시간 말미에 간단한 질의응답과 단어설명 시간이 주어진다.

또 이번 독송회 신행결사에 채택된 교재의 저자와 대화시간을 마련해 니까야에 대



김재일 회장



전재성 박사



이미령씨

### 4주간 오리엔테이션 후 '쌍왓다니까야' 시작

### 독후감 발표·세미나·질의응답으로 공부 점검

한 공금증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독후감 발표회나 세미나 등의 이벤트를 개최해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불자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도 5명 이상으로 독송 신행결사 팀을 구성하면, 교재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지도도 해 줄 방침이다.

첫 독송은 전재성 박사의 12권짜리 번역서 쌍왓다니까야로 시작되며, 나머지 교재는 추후 결정된다.

이번 니까야 독송 신행결사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우선 원전강의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으로 그것도 7년에 걸쳐 경전 전체를 모두 읽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불사다.

또한 한글 니까야는 현대적 감각의 언어로 번역돼 있어 젊은층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불자들이 하여금 경전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잘못 이해돼 온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동산반야회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자들이 접하는 경전의 경우 중국을 거쳐 우리말로 두 번 번역되면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김재일 회장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쌍왓다니까야에 "불자들은 열반을 증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열반을 욕심·화·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열반을 이상적으로 설명함

으로써 불자들이 오르지 못할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미투'이라는 단어의 경우 한자에서 주는 어감을 쉽게 접근하지 못할 부처님으로 인식되나, 원전에서는 형제·자매와 같은 친근한 의미로 묘사돼 있어 부처님 당시 미투의 의미가 대중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의 경우는 중국의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공(空)은 빼알리어로 '수나타'이며 '크고 작은 것을 부정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부정하고, 생사를 부정하는 의미이지만, 불자들은 공의 의미를 매우 난해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원전을 읽어나가다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매우 어렵게 여겨왔던 단어와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동산반야회는 강조했다.

원전 강독이 주는 이점도 적지 않다. 5부 니까야는 모두 대화체로 구성돼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또 대화체이다보니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한글 경전보다 쉽게 다 읽는다.

그리고 해외 여행과 해외 성지순례가 보편화된 요즘, 인도의 각 지명을 원어로 익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처님 당시 마가다 왕국의 수도였던 '왕사성'의 경우 원어로는 '라지گیر'인데, 원어명을 알고 여행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재일 회장은 "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긴 시간동안 진행되는 일이나만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부처님 말씀을 원전으로 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732-1206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 일터가 도량입니다

### 오후 불식·염불로 '간절한 마음' 지켜

#### 위강원한의원 전병룡 원장

오후 4-5시 사이로 6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침을 놓았다. 하루 평균 40-50명 정도를 진료하는 고된 하루. 그렇게 27년을 살아왔지만 단 하루도 고단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다. 소화기 계통으로는 서울에서 꽤 유명하다는 종로 효제동에 위치한 위강원한의원 전병룡(55) 원장. 그 비결은 수행과 일을 따로 여기지 않는 '마음'에 있다.

전 원장의 진료나 상담은 거의 '법문' 수준이다. 진료를 받으러 온 40대

터 일체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오후불식을 해 온지는 벌써 10년이나 된다. 게다가 오계를 철저히 지킨다. 수행자다운 삶을 사는 전 원장이지만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손으로 시원하게 낮게 해 줄 수 없는 환자를 대할 때가 그렇다. 전 원장은 업으로부터 병이 온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업이 두터워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심성을 다스릴 것을 주문한다. 약도 따지고 보면 마음이 정화돼야 효과가



진료를 하고 있는 전병룡 원장. 전 원장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처방을 내놓는다.

후반의 한 여성에게 전 원장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몸이 편하려면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라며 처방전을 내놓는다.

전 원장의 상담은 단순한 '치료용'이 아니다. 자신의 생활이 꼭 그대로다. 전 원장의 하루가 그것을 말해 준다. 전 원장은 매일 새벽 2시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고 새벽예불을 올린 뒤 108배를 하고 염불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만도 3-4시간.

아침을 먹고 나서 한의원에 출근하는 시간은 8시. 한의원에 와서 곧장 향하는 곳은 휴식공간에 마련돼 있는 불단. 여기에서 간단히 예불을 올린 뒤 오후 6시30분까지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저녁예불을 올리고 하루를 참회한 뒤 경전을 읽고 9-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든다.

이런 일상 가운데서 또 하나 빠뜨리지 않는 것은 '오후불식'. 전 원장은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오후부

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60년대에 개원한 위강원한의원은 20평 규모로 아담하다. 이곳은 전 원장에게는 아버지의 대를 이은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불단을 모셔놓은 도량이기도 하다. 가회동 5층짜리 자택에는 법당이 들어서 있고, 이따금씩 전 원장과 인연있는 스님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며칠씩 기거하기도 한다. 전 원장은 때가 되면 자신의 법당을 개방해 수행도량으로 가꿔나갈 생각이다.

"수행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간절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전 원장.

전 원장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보는 이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전 원장의 일터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해주는 도량 같은 기운이 감돈다. (02)762-7770

글·사진=한명우 기자

## 전국병원불자회 태국서 의료봉사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이원철)가 내년 1월에 태국에서 제4차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한다.

2007년 1월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태국 치앙마이에 위치한 치앙라이 사찰에서 진행될 이번 해외의료봉사에서는 내과, 안과, 한방과, 약제과, 발마사지 등 10여 명이 구성된 병원불자회 의료진이 치앙라이 사찰 인근의 양로원과 지역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게 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그동안 몽골과 스리랑카 등지에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태국 불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편, 한국과 태국 불자들 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해 양국 불자간 선린우호관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 관세청불자회 창립 1주년 26일 구인사에서 기념법회

관세청불자연합회(회장 피재기)는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성운갑 회장의 축사와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법문 등으로 진행된다. 관세청불자회는 법회가 끝난 뒤 '관세청불자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뒤 구인사를 돌아볼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 국립의료원 범우회 17주년법회 효림스님 법문

국립의료원 범우회(회장 이원주)가 창립 17주년을 맞아 11월 24일 국립의료원간호대학 9층 강당에서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는 효림 스님(따주 보광사 회주)의 법문과 불자가수들이 참가하는 여흥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국립의료원 범우회는 간호사 위주로 구성된 불자회로, 매주 의료봉사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한명우 기자

## 현공풍수 양택사(陽宅師)과정 모집

“뜻 있는 곳에 성공이 있다”

- ◆모집인원 : 50명
- ◆강의일정 : 12주 3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 ◆개강일 : 2006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 ◆강의내용
  - ※ 현공풍수의 이론에 입각한 양택(주택, 아파트, 공장, 사무실, 관공서 등)의 부지선정, 건물의 배치, 좌향, 풍로, 방문, 가구 및 집기 등의 배치방법, 현장실습5회 이상 실시
- ◆수강료 : 30만원
- ◆강의장소 : 서울시 종로구 송인1동 55-6 수석빌딩 3층
- ◆문의처 : 교학처 02)766-1321-2  
담당교수 박민석 011-756-7630  
박성건 011-246-1079
- ◆특전
  - 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전국풍수지리통일학회 평생회원
  - 풍수 양택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신지식 보수교육
  - 대만, 홍콩, 중국, 일본 양택사와 교류

**중앙대학교** 위탁교육기관  
중앙 HRD 교육원  
전국 풍수 지리 통일 학회

##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쟁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매장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선남선녀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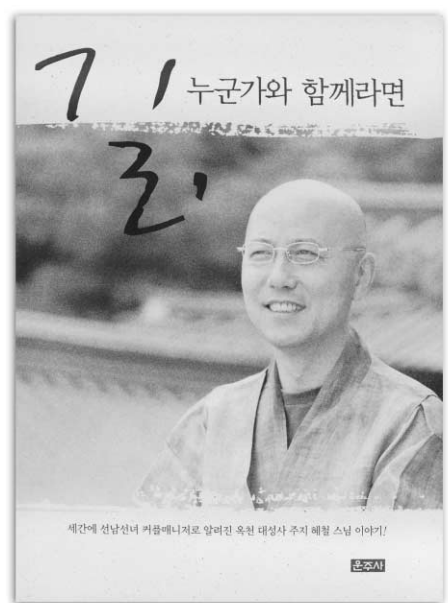
### 혜철스님의 가을같은 맑은 이야기!

'대성사 따뜻한 만남'이라는 새로운 법회를 통해 처녀축가 인연 맺어주시기를 실천하는 혜철스님이 그동안의 법문과 기고문, 그리고 시와 단상 등을 모아 엮었다. 세간의 일상을 담담히 담아내는 따뜻한 시선, 환경오염에 대한 애절한 안타까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 대립과 투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난다.

인생은 나와 인연과縁을 맺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독자 한사람 한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며, 함께해서 행복한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대성사 주지 혜철 합장



71, 누군가와 함께라면

혜철스님

71, 누군가와 함께라면

국립/278쪽/12,000원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구입안내 : 현대불교 대전총부지사 043)732-5560